



Key Point

최근 겨울로 접어들면서 베트남 내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현지 소비자층 내 따뜻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라면의 경우 쌀국수 등 현지 음식에 비해 다소 비싸고 맛은 매운 편에 속하지만 베트남 주요 소비자층인 MZ세대(Millennium + Z)들의 K-Pop, 한국드라마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그 관심도 및 구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베트남 현지 주요 라면 생산기업인 에이스룩(Acecook)이 최근 즉석라면 뷔페 체인점을 오픈하였다. 한국식 즉석라면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라면에 비해 3배 이상 저렴한 가격인 10,000~12,000VND(한화 약 500~6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 공략을 위해 타 현지 라면 생산기업들도 동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가격 경쟁력에 대한 고민과 함께 차별화된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한국식 즉석라면기계 관련 현지 뉴스 기사 - <https://kenh14.vn/ha-noi-lanh-10-do-c-cung-di-trai-nghiem-may-nau-mi-chuan-phim-han-ngay-giua-long-thu-do-voi-gia-chi-tu-4900-0-dong-20210101103919063.chn>

하노이에 오픈한 한국식 즉석라면 전문점 인기

베트남 MZ세대를 이끄는 한류

베트남 현지 주요 온라인 매체인 'Kenh14'에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에서 방송되는 여러 해외 프로그램 중 한국의 드라마 및 영화 시청률이 타 해외 프로그램 대비 크게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그러한 이유로는 MZ세대라 불리는 베트남 젊은 소비자층들이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한국방송을 자주 시청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들이 출연한 방송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여러 한국산 화장품, 식품류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에 설치된 한국식 즉석라면기계

'20년 10월경 베트남 수도 하노이 내 주요 음식점, 호텔 등이 밀집되어 있는 호띠이군(Quan Tay Ho)에 한국식 즉석라면 전문점이 등장하여 현지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베트남 호띠이군에 한국식 즉석라면 전문점을 오픈한 현지 대표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창업 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음식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진행해 본 결과, 다양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 및 연예인들이 한강 등지에서 즉석기계를 이용하여 라면 등을 간편하게 섭취하는 모습을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이 인상 깊게 이를 시청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이것이 곧 창업 배경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20년 10월 베트남 주요 구역인 호띠이군에 한국식 즉석라면 전문점을 오픈하였고, 판매 중인 라면의 가격대가 현지에서 생산되는 라면 가격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중 베트남 현지인들의 평균 방문객 수가 약 1,300여 명 수준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이 한국식 즉석라면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가격은 49,000~69,000VND(한화 약 2,500~3,000원) 수준이며, 이는 베트남 길거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쌀국수 가격의 2배 수준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한국식 즉석라면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의 가격이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많은 베트남 현지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인기 이유로는, 첫째 한국 라면에 대한 호기심, 둘째 즉석기계를 통해 라면을 간편하고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편리함, 셋째 추워지고 있는 날씨로 인한 따뜻한 음식 섭취 등이며, 특히,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 등이 사용했던 기계를 현지에서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만족감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자료 : 즉석라면 전문점 내 열려있는 라면 / 즉석라면기계 사진 (* aFamilyvn.net 뉴스기사 인용)